

## 어명소 2차관 ‘가덕도신공항 '29 12월 개항 위해 전방위 노력’ 강조

-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 “우리는 원 팀(One Team)” 협력 강조 -
- 신공항 예정지 찾아 기본계획 수립 등 차질없는 후속 절차 당부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월 24일(금) 오전 부산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신공항의 '29년 12월 개항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.
- 어 차관은 “ '29년 12월 가덕도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'원 팀(One-Team)'이 되어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, 부산시의 보상관련 업무수행, 환경영향평가, 건설공단 설립 과정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 및 협력이 필요” 하다고 강조하였으며,
- 박 시장은 “국토부가 발표한 가덕도신공항의 조기개항 로드맵을 크게 환영하며, 부산시가 보상업무를 수탁받아 직접 수행하고, 연계 교통망 확충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부산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다” 고 밝혔다.
- 이날 오후, 어 차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'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.
- 어 차관은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항 주변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새바지항에서 신공항 배치계획안 등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뒤,
- “가덕도신공항의 '29년 12월 개항을 위한 추진 로드맵이 마련된 만큼, 사전준비 및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로드맵 지연이 없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” 고 강조하였다.

2023. 3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